

2020 인천아트플랫폼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

2020 Incheon Art Platform

The Most Memorable Artist of the Year

2020/08/11-10/04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B Gallery

Location
N O

문소현 개인전

발견된
위치
없음

MOON Sohyun
Solo Exhibition

t
Found



Location
N o t
Found



인천아트플랫폼은 ‘2020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로 선정된 문소현의 개인전 《발견된 위치 없음(Location Not Found)》을 개최한다. ‘IAP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는 해마다 개최되는 레지던시 입주작가 결과보고 전시 기간 중 초청된 전문가의 심사와 관람객의 투표로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창작 지원금과 개인전 개최를 지원하는 전(前) 입주작가 대상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다.

문소현은 《2019 플랫폼 아티스트》展에서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의 소설을 읽으며 떠올린 이미지를 드로잉하고, 이를 가상공간의 전시로 구현한 무빙 이미지 작업 〈드로잉 전시〉(2019)로 예술성과 실험성을 인정받아 ‘2020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로 선정되었다.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과 구조화된 욕망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제작한 무대와 퍼펫(Puppet)으로 서사 구조가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작업 속 미니언처 세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작품 속 인물의 움직임과 실제 사람의 행동 사이의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실제 세계로 그 무대를 옮겨 관람객이 서사를 완성하는 방식의 영상 설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발견된 위치 없음〉은 ‘드로잉 전시’의 무빙 이미지가 14채널로 확장된 형태로, 동일한 작업방식을 취하지만 실재하는 공간, 즉 전시가 진행되는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을 직접적인 무대로 활용한다. 작가는 전시장의 통로와 가벽, 구석이나 창, 계단과 같이 관람객이 마주하는 공간 곳곳을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스크린 속의 공간은 관람객이 위치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작가에 의해 변형되고 파편화되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공간이기도 하다.

〈발견된 위치 없음〉은 이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에로티시즘을 정면으로 다룬 조르주 바타유의 소설 『불가능』*을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특히, 바타유가 인식하는 신체를 “양손을 잔뜩 오그린” 형태로 묘사한 구절은 작업의 시작점이 되었다. 매음굴을 전전하며 집착적으로 써 내려간 그의 자전적인 소설에서는 어둠과 죽음, 욕망과 공허함,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하다. 작가는 여기에서 포착한 언캐니한(uncanny) 감각을 드로잉하거나 젤 왁스를 사용하여 형상화한 신체를 만들어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설정한다.

작가는 평소 물속에서 굴절되고 왜곡되는 신체의 형상에 호기심을 가져왔다.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와해되는 신체의 일부는 다른 차원의 신체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마치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의 신체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 남성의 욕구에 의해 필요한 부분만 찢김이 되어 변형되고 이접된 신체는 가능한 것 같지만 불가능한 형상처럼 느껴진다. 작업 속 신체는 실재하지만 감추고 싶은 이미지가 그대로 발화한 모습이며,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의 형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완성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신체는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

속에 부유하며 새로운 시간성을 창조하고, 작가가 설정해 놓은 비현실적 요소와 뒤섞여 전시장을 불가능한 공간이자 발견될 수 없는 장소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작가는 삶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이 탈락했을 때 절망감을 느낀다. 하지만 여기서 포착한 감각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삶의 위안을 삼는다. 마치, 바타유가 “밤(죽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동력으로 여기며 (역설적이게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듯, 스크린과 전시 공간 사이를 누비며 ‘불가능의 공간에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밤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힘”에 대해 깊이 사유하길 바란다.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이은진

* 조르주 바타유
『불가능』(위크롭
프레스, 2014,
성귀수 옮김) 참조

Incheon Art Platform hosts the solo exhibition *Location Not Found* of MOON Sohyun. 'IAP the Most Memorable Artist of the Year' is a follow-up program for former resident artists which involves the selection of one artist during the Residency Artists' Exhibition hosted each year through evaluation by invited experts and votes of visitors, as well as supporting the artist with a creative support fund and holding solo exhibitions.

MOON Sohyun was selected as 'The Most Memorable Artist of the Year 2020' for the artist's artistry and experimentalism in the moving image work *Drawing Exhibition* (2019) in which the artist drew images inspired by reading a novel by Georges Bataille. The images drawn by the artist have been realized to an exhibition in virtual space in the *Platform Artists 2019*.

Taking an interest in the situation faced by human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of structuralized desires, the artist has been creating stop-motion animation images having a narrative structure with a self-made stage and a puppet. By doing so, the boundary between the miniature world within the artist's work and reality becomes blurred confusing the artist of the movement of the character within the work and the behavior of an actual person. Recently, the artist continues video installation of a narrative which is to be completed by the audience by moving the stage to the actual world that is familiar to us.

Location Not Found, which is newly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s a form of the moving image of the '*Drawing Exhibition*' that has expanded to 14 channels. Although the same working method is employed, the actual space, that is the IAP Building B Gallery where the exhibition is to take place will be utilized as a stage itself. The artist actively involves every space imaginable such as a hallway, a temporary wall, a corner, a window or stairs in the exhibition that the audience may come across. The space within the screen is not only a space where the audience is located, but also another space transformed and fragmented by the artist that is non-existent.

Like the artist's previous work, *Location Not Found* uses Georges Bataille's novel *The Impossible (L'Impossible)**, which takes a head-on approach to eroticism, as the main motif. In particular, the passage in which Bataille describes a drowning body in the form "overly curling both hands" has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the work. In his autobiographical novel, which was obsessively written wandering the brothels, there are many images of darkness and death, desire and emptiness, and the impossible. The artist has created a body, which was given shape by drawing or using gel wax to capture a sense of uncanniness inspired by the novel, and set as an endlessly moving being.

The artist has always been fascinated by the shape of the body in water which becomes distorted and misrepresented. To the artist, the portion of the body that is endlessly distorted and broken up under water is regarded as if having a physicality of a different dimension. It is similar to how the bodies of women are treated in pornography. Only parts that are necessary to men's desires are edited, and the distorted and disjunctive body feels as if it's taken a possible yet impossible form. The body within the work is a burgeoned form of an image that exists yet wants to be kept concealed, and is a form of our desires that we wish to deny. The incomplete and unstable body moves within the space created by the artist creating a new temporality, and these bodily images drift in the screen space mixed with

unrealistic elements set by the artist to have the exhibition function as a 'space of the impossible' and a location not found.

The artist feels a desire for life and despair when the desire falls through (or unfulfilled). However, the artist finds solace in life working through the sense of unfulfillment captured herein. Just like Bataille considers "loving the night (death and ecstasy)" as a driving force of life (paradoxically) and struggles to survive, we hope our audience wanders between the screen and the gallery to discover a new location, and deeply contemplate on "the strength needed to love the night."

Incheon Art Platform
Curator LEE Eun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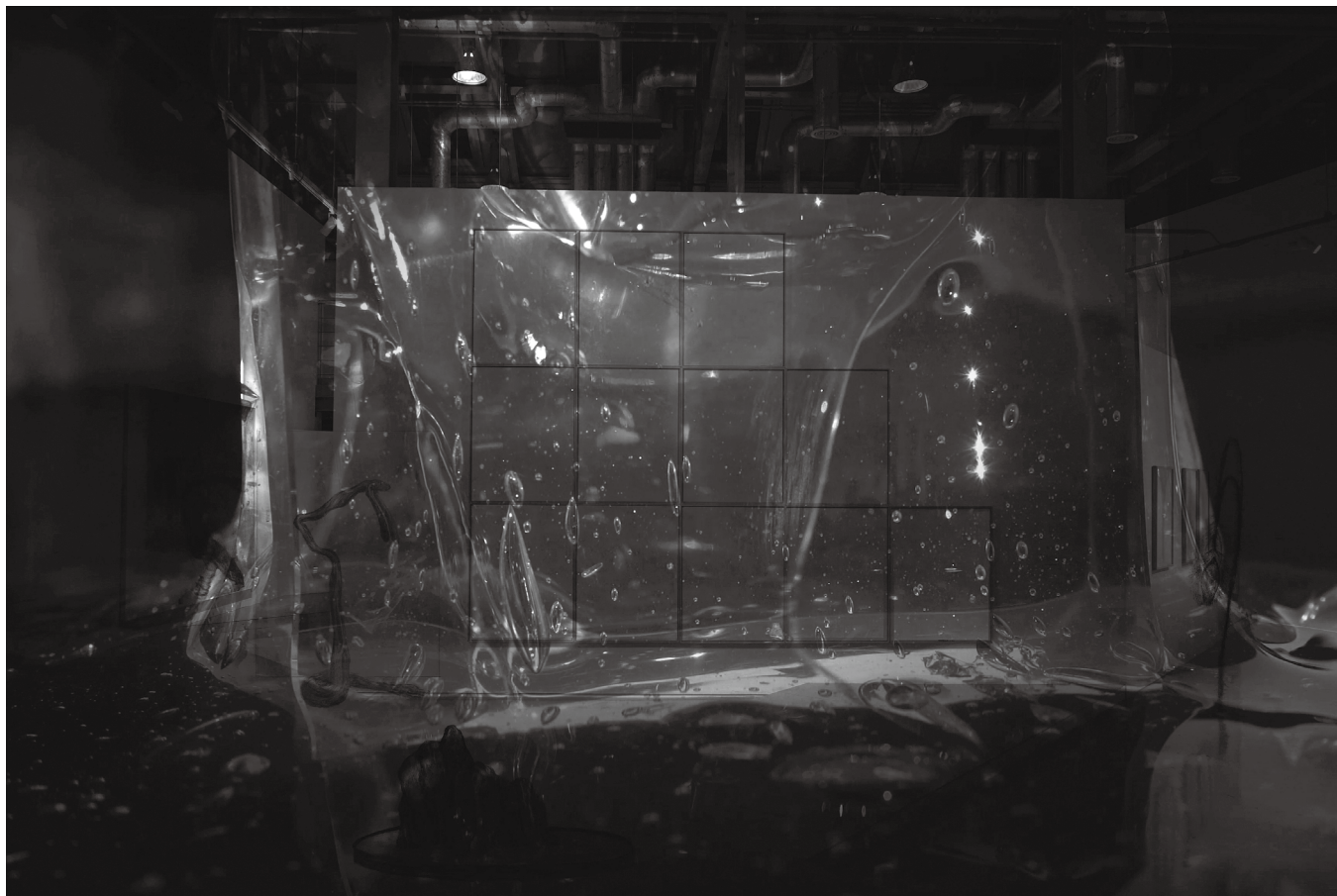
* Georges Bataille,
The Impossible
(*L'Impossible*)
(Workroom Press,
2014, Trans. Kwi-Soo,
Sung)



발견된 위치 없음 #통로
Location Not Found #A Hallway

발견된 위치 없음 #구석
Location Not Found #A Corner





발견된 위치 없음 #가벽
Location Not Found #A Temporary Wall



발견된 위치 없음 #창
Location Not Found #A Window



발견된 위치 없음 #가벽과 벽
Location Not Found #A Temporary Wall and the Wall



뼈대, 빛, 살: 언캐니 실험실

이나라
이미지 문화
연구자

문소현의 작품은 현대사회를 바탕의 그림자로 알아둔다. 동시에 그림자와 같은 바탕 위로 문소현이 만들어낸 형상들이 또 다른 그림자로 일어선다. 빛이자 그림자와 같은 바탕, 뼈대이자 살덩어리 같은 형상들로 문소현은 끊임없이 낯섬의 실험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빛을 피하기 위해 애쓰다 자기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린 사내를 보여주는 문소현의 〈빛의 중독〉(2007)은 현대사회의 인간의 상황을 은유하며 인간에 대한 테크놀로지 통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을 들여, 직접 제작한 퍼펫(puppet)을 스톱 모션으로 촬영하고 애니메이션화한 〈공원 생활〉(2016, 단채널 상영, 12채널 설치)에서도 현대사회 속 인간에 대한 관찰은 계속된다. 작가는 삶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던 도심 속의 공원에서 보았던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작품을 구성했다고 밝힌다. 문소현이 다루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들은 모래놀이 영상에 등장하는 괴물을 제외하면 공원 분수대, 놀이터 모래사장, 새, 개, 나무, 공사장, 체육시설 그리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먹는 사람들 등 모두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문소현이 구성해 낸 세계는 관람자에게 어떤 기이함을 경험하게 한다. 개는 주저앉아 자기 다리를 계속 씹고 있고, 주저앉은 사내 하나의 다리도 마찬가지로 호물호물해져가고 있으며, 물려든 사람들이 줄을 서 오리에게 먹이를 떠먹이고, 또 다른 사내는 활 없는 활을 계속 당기고 있는 광경은 섬뜩하고 기이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라블레(또는 라블레에 대한 미하일 바흐친의 해석)와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를 즐겨 읽는 문소현의 작업은 거의 예외 없이 섬뜩하고 기이한 감정, 즉 ‘언캐니(두려운 낯섬, uncanny, unheimlich)’의 경험을 제안한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unheimlich’라는 독일어 단어를 파생시킨 ‘heimlich’를 분석하며 잘 지적한 것처럼 ‘낯설다’는 감정은 친밀함을 가정하고 있는 감정이다. ‘heimlich’에는 친숙하고 편안하다는 의미와 이와 상반되는, 은폐되어 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집(Das Heimische)과 같이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친근한 것이고, 친근한 것이지만 아주 오래전의 것”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종종 낯설다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에 대한 감정이기보다, 익숙한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면모, 아주 작은 비밀, 은폐된 것을 낯설게 느낄 때 심원한 불안이 찾아온다. 죽음의 두려운 낯섬을 가장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사건인 것은 죽음이 우리를 시종일관 쫓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러붙는 사건이며,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목격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소현이 만들어낸 광경은 우리에게서 밀려난 완벽한 타자, 비체(object)적인 것 또는 끔찍한

환상 세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동시에 낯선 세계의 으스스한 광경이다. 꿈속의 광경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며 꿈의 경계에서 보는 광경이다.

문소현의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캐니, 두려운 낯섬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낯선 방식에서 기인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닮은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문소현은 〈공원 생활〉 등의 스톱 모션 작업에 대해 “판타지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형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퍼펫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령과 좀비와 같은 ‘유사’ 인간들은 어두운 밤의 존재이기에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우리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에 우리를 소스라치게 한다. 문소현의 퍼펫은 이러한 인간형태의 섬뜩함을 이끌어낸다. 〈공원 생활〉 이후 퍼펫을 사용하지 않은 〈불꽃 축제〉(2018), 〈낙원으로〉(2018) 작업에서도 공간은 낯설고 유사 인간은 범람한다. 문소현은 인천 송도, 월곶, 수원, 파주, 부산 등지 모텔촌, 롯데 타워, DDP 같은 대형 건물, 빛 축제장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와 케이크, 액체괴물, 섹스토이, 인체 피규린(figurine), 음식물, 분재 등의 사물을 직접 촬영한 후 일정한 조작을 가한 영상으로 다채널 설치작업을 만들어냈다. 전광 경관을 애니메이션화한 ‘불타는 밤’, 기념일의 대명사인 케이크 위로 시럽이 쏟아지는 장면을 근접 촬영한 ‘Take the Cake’, 살충 조명에 타들어 가는 벌레를 촬영하여 99 bpm으로 편집한 ‘터지는 폭죽들’과 함께 〈불꽃 축제〉를 구성하고 있는 스크린 조형물 ‘모닥불 주변의 촛꾼과 가수’—LED 조명과 송풍 장치를 사용한 기립한 인공 불꽃 조형물 아래 4개의 스크린이 설치되었다—의 스크린과 〈낙원으로〉의 ‘순한 짐승’에는 액체 괴물을 뒤집어 쓴 분재나 경련하듯 움직이고 흘러내리는 섹스토이 피규린 신체 이미지, 동물 인형 이미지 등이 투사되었다. 2채널의 〈낙원으로〉는 ‘빛나는 밤’과 ‘순한 짐승’이라는 제목을 단 두 영상을 각각 다른 포맷의 스크린에 상영한다. 두 번째 스크린은 빛 축제장 영상 ‘빛나는 밤’이 상영되는 평면 사각 스크린 아래쪽에 배치된 인간 크기와 다르지 않은 쿠션이다. 관람객은 쿠션 위로 영사된 매핑 이미지 ‘순한 짐승’ 맞은편에 같은 모양의 쿠션에 앉아 두 개의 스크린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관람객은 파편화된 신체와 생물의 이미지인 ‘순한 짐승’의 스크린과 스크린 속 영상에서 자기 자신의 신체를 발견한다. 우리 속의 깊은 불안을 자아내는 우리 자신의 신체가 여기 있다.

문소현은 공원, 가짜 불꽃과 다름없는 오색 빛이 가득한 동시대의 축제의 장소나 네온으로 외관을 장식한 모텔 등을 노동과 시장 시스템의 부속품에게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잠깐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작가는 축제장에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캠프파이어의 불꽃을 발견하지 못한다. 상하의 위계가 뒤바뀌는 카니발 축제에서처럼 사회적 질서의 일시적 해체도 일어나지 않는다. 몸이 생명과 생산의 주체이자 지배와 예측의 대상인 것처럼 공원과 축제장

역시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공간이면서 이 욕망이 통제되고 욕망의 해소가 좌절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축제와 섹스토이는 문소현에게 양가적 공간이자 사물이 된다. 문소현은 구조물이면서 구조물의 훼손을 보여주는 다채널 설치로 욕망의 생산과 통제를 함께 보여준다.

〈탕〉(2012), 〈없애다... 없어지다〉(2009)에서 혀와 살을 주제로 삼았던 작가는 도시 공간 역시 안과 밖, 내부 감각과 외부 감각이 기묘하게 얹혀있는 일종의 신체로 다루기에 구조와 구조의 훼손은 골격과 살의 문제가 된다. 건물의 전광 경관, 살충조명, 스크린 설치물은 구조이자 골격이며 흘러내리는 시럽, 조명에 부딪히는 벌레, 뒤척이는 섹스토이는 골격을 벗어나고, 골격을 빼앗긴 ‘살덩어리’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골격이란 이미 몸이라는 구조에서 발라낸, 즉 이미 훼손된 상상한 내부이기도 하다. 18세기 회화에서 이미 기형의 재현이란 문제를 고민하였던 철학자 디드로(Denis Diderot)는 “살갗이 벗겨진 사람”의 회화가 신체의부를 재현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몸 내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은 바 있다. 반면 괴테는 디드로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처 하나 없는 몸 바깥이라 하더라도 몸이란 이미 오장육부 ‘내부’를 끊임없이 바꾸어가며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은 “벌어지는 이미지”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조화미, 우아함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보티첼리의 〈물에서 태어나는 비너스〉조차 미네랄과 같은 우아하고 조심스런 나체의 외면과 경악할만한 내부의 잔혹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우아함과 잔혹함의 이중체제는 늘 이미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 신체의 구멍들과 벌어짐을 상기하게 한다. 이것이 벌어지는 이미지의 속성이다.

유사 인간의 내장이라 할 것들이 안과 밖, 위아래가 뒤섞인 채 등장하는 문소현의 스크린에서 관람객은 자신의 신체를 경험하기에 이들은 벌어지는 이미지다. 〈공원 생활〉에서는 사내가 끌어당기는 개의 목줄과 활시위(제어와 공격), 문드러진 다리를 가진 인간과 개(인간과 동물), 살아있는 오리와 불판 위에서 타는 오리(산 것과 죽은 것), 물과 핏물(순수와 비순수) 사이에서 경계가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문소현은 욕망의 통제, 규율, 은폐 시스템의 빛나는 표면(이자 골격, 골격으로서의 이미지)을 추출하고, 자르고, 묶으며 일그러뜨리고 벌린다. 표면은 ‘빈틈없이’ 빛으로 명멸하기에 틈으로 벌어진다. 이 틈에서 불안의 얼굴(이자 살, 살로서의 이미지)이 발작과 경련으로 드러난다. 문소현의 작업실과 전시장은 안과 밖, 친밀한 것과 낯선 것, 영혼 없는 사물과 영혼, 기계적 반복과 유기체적 경련, 실험자와 피험자가 하나가 되는 경계의 실험실이라 할 것이다.

이나라는 이미지 문화 연구자로, 파리 팡테옹 대학에서 동시대 영화가 물질성과 흐름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화, 무빙 이미지에 대한 동시대의 미학 이론을 연구하고, 영화사, 인류학적 이미지 및 동시대 이미지 작업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를 시도한다. 현재 동시대 영화 트랜스미디어 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발견된 위치 없음 #절실하던 시점에 불현듯 도달하고는
Location Not Found #We Suddenly Reach the Necessary Point

발견된 위치 없음 #잃어버린 어느 순간을 찾다며 남은 인생을 소모한다
Location Not Found #And We Spend the Rest of Our Lives Seeking a Lost Moment





Skelton, Light, Flesh: The Uncanny Laboratory

LEE Nara
Image Culture
Researcher

Depicting a man who hides in his own shadow in his struggle to avoid the light, MOON Sohyun's *Poisoning of Light* (2007) appears to present a metaphor on the situation of humanity in modern society while criticizing the technological control over humans. The artist continues her observation on humans in modern society in *Life in the Park* (2016, single-channel, 12-channel installation), a stop-motion animation of her very own puppets which she worked on for two years. Moon reveals that she composed her works based on the things she saw in a city park that she visited to rejuvenate herself from the weariness of life. Aside from the monster that appears in her sandbox footage, all the objects and people in Moon's works are those that are often commonly found in a park, such as water fountain, playground sandbox, birds, dogs, trees, construction site, gym, and people going on walks, exercising, or eating. Despite this ostensibly quotidian scenery, the world created by Moon offers the viewer a certain bizarre experience. The dog sits gnawing at its own leg, the leg of the man slumped on the ground grows limp and wobbly, a crowd lines up to feed the ducks, while another man pulls at a bow without a string. Such sight stirs up a creepy and eerie sensation. An avid reader of the works by François Rabelais (or at least Mikhail Bakhtin's interpretation of Rabelais) and Georges Bataille, Moon almost always presents unsettling and eerie sensations in her works, which can also be described as an "uncanny" (scary unfamiliarity, unheimlich) experience. However, as Freud noted in his analysis of heimlich, the German base word for unheimlich, "unfamiliarity" is an emotion that assumes the presence of familiarity. This is because the word heimlich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hidden," in contrast with the meaning of "familiar" or "comfortable." We sometimes encounter the paradoxical feeling of unfamiliarity in "very old yet familiar, familiar yet very old" things like our homes (Das Heimische). Such unfamiliarity is not a feeling of encountering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but rather deeply unsettling anxiety experienced when we encounter abstruse aspects of familiar objects, minuscule secrets, or the concealed. Death inspires the most potentially fearful sense of unfamiliarity among us because death is an event that incessantly hounds us despite our lack of complete understanding thereof and something that we can witness within ourselves. The sceneries created by Moon are not of a completely removed, abject, or grotesquely terrifying realm of fantasy, but rather a creepy sight of a familiar yet unfamiliar world. These are not scenes we see in our dreams, but rather what we witness along the edges of our dreams as we awake from slumber.

There are two aspects in which Moon's works inspire the feeling of uncanniness or scary unfamiliarity. The first comes from the way in which a familiar space manifests itself to us in an unfamiliar way. The other comes from how objects that resemble us appear to us. On her stop-motion work in *Life in the Park*, Moon remarked that she used puppets "to clearly reveal the form of actual live people rather than to create a fantasy." Like ghosts or

zombies, these “pseudo-humans” are frightful not because they are creatures of the night but because they resemble us so much aside from the slightly different movements. Moon’s puppets maximize such horror inherent in the human form. Even in the puppet-less works that followed *Life in the Park* such as *Fireworks Festival* (2018) and *To Paradise* (2018), their spaces remain unfamiliar and run rampant with pseudo-humans. Moon took photos of familiar locations such as Songdo of Incheon, Wolgot, Suwan, Paju, motel district in the outskirts of Busan, Lotte Tower, giant structures like the DDP, and the light festival site, along with ordinary objects such as cake, slime toy, sex toy, figurine, food, and bonsai. She then manipulated these videos to create a multichannel installation. Comprising *Fireworks Festival* are *Burning Night*, the animated scenery of neon signs; *Take the Cake*, the close-up shot of syrup pouring on cake, which so often represents celebratory occasions; *Exploding Fireworks*, the footage of bugs combusting from the bug zapper edited to play at 99 bpm; and the screen sculpture *A Dancer and a Singer Around Bonfire*, which consists of four screens installed beneath an artificial fire structure created by using LED lamps and fans. In *A Gentle Beast* of *To Paradise*, Moon projects images of a slime-covered bonsai; body images created by the seemingly convulsing and melting sex toy figurines; and images of animal puppets. Set up as a two-channel work, *To Paradise* plays each of *Shining Night* and *A Gentle Beast* on different screen formats. While a flat rectangular monitor plays the scenes from the light festival in *Shining Night*, a human-sized cushion placed beneath this display serves as the second screen, with *A Gentle Beast* projected on the cushion. An identical cushion is provided across this screen-cushion for the viewers to sit on and watch the two screens, during which the viewers come to discover their own bodies in the screen and footage of *A Gentle Beast*, a video that presents images of fragmented bodies and creatures. Thus we come to discover our own bodies manifested in such a deeply unsettling manner in th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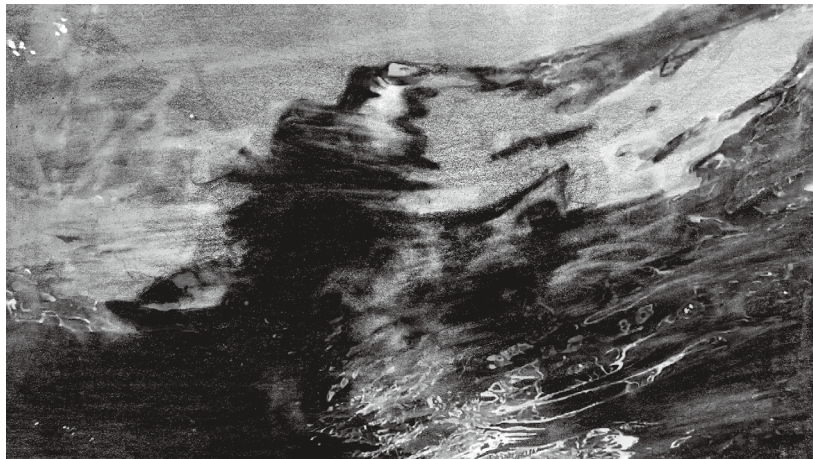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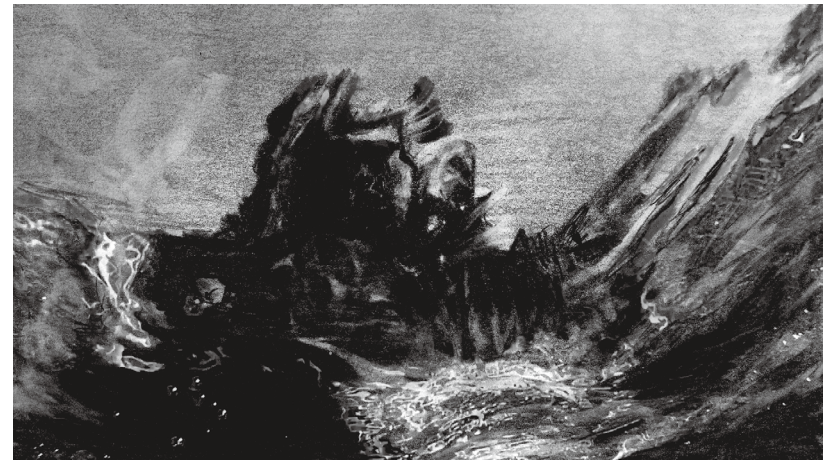
Moon also recognizes parks, contemporary festival sites filled with colorful lights that are no different from fake flames, and motels adorned with neon lamps as a means of exercising control over the components of the workforce and market system by providing a brief moment of respite so that they can work even harder. In the festival site, Moon does not find the campfire flames that fill a childhood experience with wonder, nor does she find a momentary dissolution of social order like in the carnival festivities, where social hierarchies are flipped upside-down. To Moon, festivals are not only brimming with human desires but are also a venue to control such desires, vanquishing any hope of fulfilling them, just like how the human body serves as the primary means of enabling human life and productivity while also remaining vulnerable to falling under others’ control and subordination. As such, festivals and sex toys become ambivalent venues and objects for the artist. Moon simultaneously presents the production and control of desire through her multi-channel installation that stands as a structure as well as a destruction of the structure.

In *The Black Flesh in the Mouth* (2012) and *Make it Vanish... Vanishes* (2009), tongue and flesh become the main subjects respectively. Like the literal body parts Moon worked with in these two works, she continues to treat urban venues and structures as a sort of a physiological existence, in that the exterior and interior components of urban spaces are as intricately

intertwined as the external and internal instruments of sensation in the human body. Thus, the structure and destruction of structure become a question of bone and flesh in Moon’s works. The neon lights, bug zappers, and screen installations act as the structures or “skeleton,” whereas the drizzling syrup, the bugs crashing into the zapper, and fidgeting sex toys act as the “flesh” that have escaped the confines of the underlying skeleton and even had such skeletal structures taken away from them. An exposed skeleton or structure is, in essence, the frail remains of the internal components, the aftermath of a damaged, flayed, and filleted body. Diderot, the philosopher who was already pondering about the issue of representing deformity in 18th-century paintings, complained that painting of “the flayed man” unnecessarily revealed a person’s insides instead of representing the external human form. In contrast, Goethe criticized Diderot’s ignorance, arguing that even a body without a single scratch on the externally ostensible skin “manifests” its ever-changing “insides,” i.e. the entrails et alia. Georges Didi-Huberman suggests a concept he described as “an opening image.” Even works like Botticelli’s *The Birth of Venus*—which is lauded as the paragon of balanced and elegant aesthetics—presents the mineral-like elegance and careful externality of the naked body while also shedding light on the ruthlessly shocking image of the inside. This dualism of elegance and gore in images reminds us of the orifices and openings in our own bodies. Such is the nature of “opening image.”

The jumble of the pseudo-human entrails in Moon’s work allows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ir own image, and therefore such images qualify as “opening images.” In *Life in the Park*, Moon deliberately erases the boundary between contrasting elements such as those between the dog leash and bowstring (control and attack); the human and dog with the deteriorating legs (humans and animals); the live duck and duck meat burning on the gril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water and blood (purity and impurity). Moon extracts, cuts, binds, squashes, and spreads open the shiny surface (as well as the skeleton and the image as the skeleton) of the system to control, regulate, and conceal. Because the surface flickers “without gaps” as light, it splits apart as a gap itself, a gap that reveals the face (as well as the flesh and the image as the flesh) of anxiety that manifests as seizure and convulse. Moon’s studio and exhibition space serve as the laboratories for experimenting with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and uniting the outside and inside, familiar and unfamiliar, soul-less object and soul, mechanical repetition and organic convulsions, and the one doing the experiment and the subject of experimentation.

LEE Nara is an image culture researcher. She received a doctorate degree at the Pantheon-Sorbonne University in Paris for her research on how contemporary films express materiality and flow. She studies contemporary aesthetic theories on films and moving images, and strives to write critically about anthropological images and contemporary image work. She currently serves as a researcher at the Dong-eui University Cinema and Transmedia Institute.





문소현

brian233@naver.com
www.sohyunmoom.com

학력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매체 전공 졸업
2008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 조소 전공 졸업
개인전	
2020	《발견된 위치 없음》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인천
2019	《홀로쇼》, 부천아트벙커 B39, 부천
2018	《낙원으로》, 신촌극장, 서울
2016	《공원 생활》,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배달의 속도》, Space55, 서울
2019	《아워 피크닉—레퍼런스》, 부평아트센터, 인천
	《퍼폼 2019: 린킨아웃》, 일민미술관, 서울
	《코끼리, 그림자, 바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파커스 피스》, 온수공간, 서울
2018	《2018 경기유망작가 생생화화: Beyond Thinking》, 고양아람누리미술관, 경기
	《No Life King》,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경기천년 도큐페스타—경기아카이브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부재의 기술》, 예술공간 이아, 제주
2017	《일요상영회》, 신촌극장, 서울
	《이상한 나라의 올빼미 집》, 시흥비발디아트하우스, 시흥
2016	《2016 서울사진축제: 신 아리랑》,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청년미술프로젝트 YAP》, EXCO, 대구
	《청년 불판》,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오늘도 좋은 하루》, 굿모닝하우스, 수원
	《2016 유니온아트페어: Welcome to Studio》,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 서울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전: Sensible Reality》, 서울 시민청, 서울
	《디애니메이션쇼》, 신세계 갤러리, 부산
	《낭만적 나침반》, 경기창작센터, 안산
	《keep on》, 스페이스+ 갤러리, 안성
	《Pilot Hole》, 복림빌딩, 서울
2015	《Freeze Frame》, 175 갤러리, 서울
	《어쩌다보니 애니메이션》,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Spectrum of Object: 김진만&문소현 2인전》, 경희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3	《알아서 조심》, 갤러리175, 서울
2011	《몸과 재앙》, 경희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0	《산으로 간 펭귄》,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2009 《유토피아 관리》, 갤러리175, 서울
《suggestive Moments》, 스페이스 함, 서울

주요 스크리닝

2019	《완성된 몸》,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인천
2018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상영), 부천
2017	제20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부천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서울
	제18회 대구단편영화제, 대구
2016	제16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2013	제13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2009	제31회 nangt 3대륙 영화제, nangt, 프랑스
2008	제18회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수상 및 선정

2020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 선정, 인천아트플랫폼
2019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 경기문화재단
2018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 경기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6	관객구애상 수상,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SeMA 신진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레지던시

202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9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6	경기창작센터,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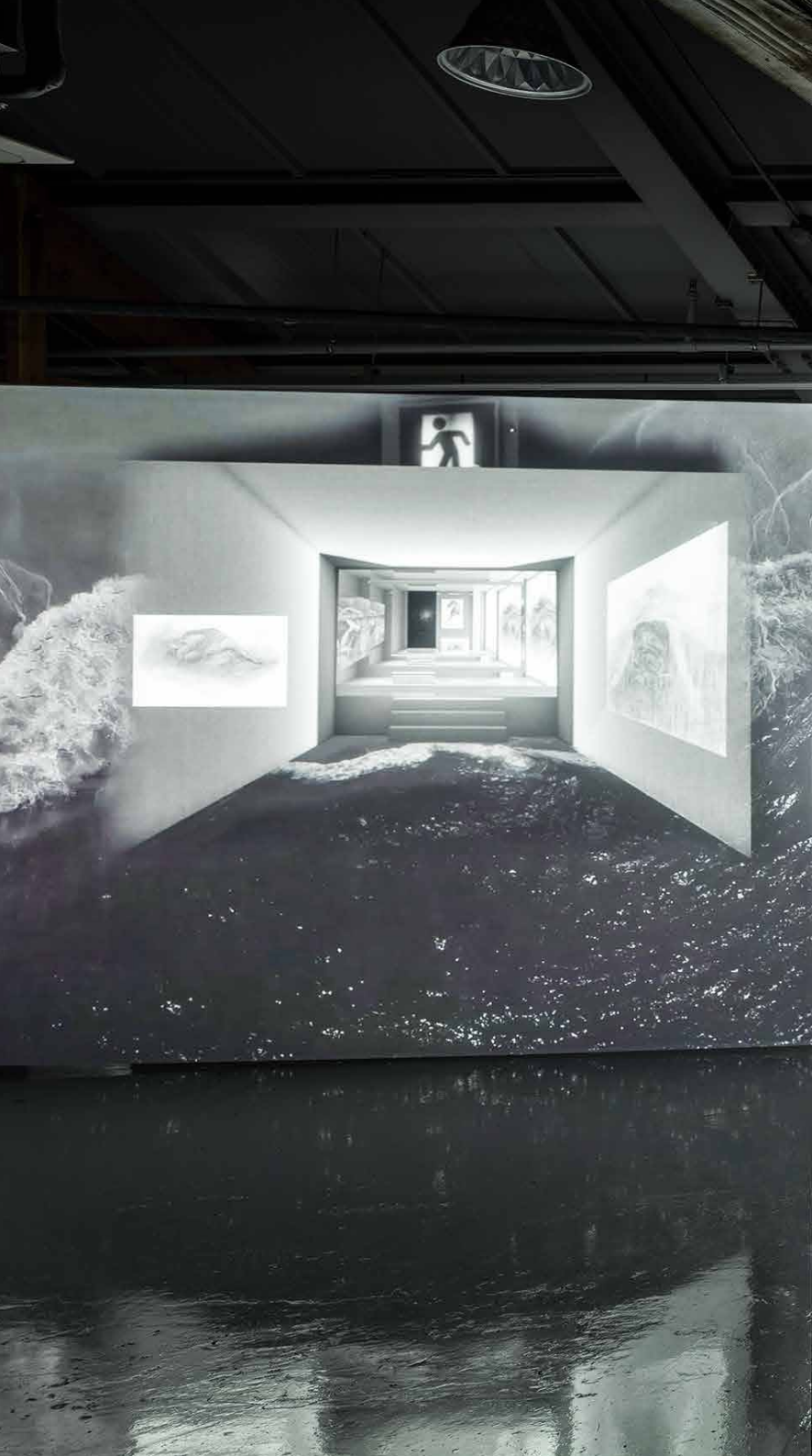
주요 작품소장

부산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Education
2013	M.F.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08	B.F.A, Kyung Hee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20	<i>Location Not Found</i>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B Gallery, Incheon
2019	<i>Hollow Show</i> , Bucheon Art Bunker B39, Bucheon
2018	<i>To Paradise</i> , Theatre Sinchon, Seoul
2016	<i>Life in the Park</i> , Space O'NewWall,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i>Speed of Delivery</i> , Space 55, Seoul
2019	<i>Our Picnic—Reference</i> , Bupyeong Art center, Incheon <i>PERFORM2019: Linkin-out</i> , Ilmin Museum of Art, Seoul <i>Image, Silhouette and Motion</i> ,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i>Parker's Peace</i> , onsu—gonggan, Seoul
2018	<i>Beyond Thinking</i> , Goyang Aramnuri Aram Art Museum, Goyang <i>No Life King</i> , Artspace Boan 1942, Seoul <i>Gyeonggi Millennium Docufesta—GYEONGGI ARCHIVE NOW</i> , Gyeonggi Sangsang Campus, Suwon <i>Description of Absence</i> , Artspace Iaa, Jeju
2017	<i>Sunday Screen Session</i> , Theatre Sinchon, Seoul <i>Owl House in Wonderland</i> , Siheung Vivaldi Art House, Siheung
2016	<i>New Arirang: Seoul Photo Festival</i> ,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i>Young Artisit Project</i> , EXCO, Daegu <i>Youth Grill Festival</i> , Gyeonggi Sangsang Campus, Suwon <i>Good Morning, Have a Nice Day?</i> , Good Morning House, Suwon <i>Welcome to Studio: 2016 UNION ART FAIR</i> , Blue square NEMO, Seoul <i>Sensible Reality: 2016 Artist Residency Festival</i> , Seoul Citizens Hall, Seoul <i>The animation show</i> , Shinsegaie gallery, Busan <i>Romantic Compass</i> , Gyeonggi Creative Center, Ansan <i>Keep on</i> , space+ gallery, Ansong
2015	<i>Pilot Hole</i> , Bokrim Building, Seoul <i>Freeze Frame</i> , Gallery175, Seoul <i>Walking Inner-Scape</i> , Art Space O, Seoul
2014	<i>Spectrum of Object</i> , Kyunghee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2013	<i>Watch Yourself</i> , 175 gallery, Seoul
2011	<i>Body and Disaster</i> , Kyung Hee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2010	<i>The penguin that goes to the mountain</i> , Nam Jun Paik Art Center, Youngin
2009	<i>Managing Utopia</i> , Gallery175, Seoul <i>Suggestive Moments</i> , space HaaM, Seoul
	Screening
2019	<i>The Completed Body</i> ,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C Theater, Incheon

2018	22nd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ucheon
2017	20th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ucheon 9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Seoul 18th Daegu Independent Short Film Festival, Daegu
2016	16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Seoul 20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ucheon
2013	13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Seoul 17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ucheon
2009	31st Festival of Three Continents, Nantes, France
2008	18th World Festival of animated Film - Animafest Zagreb, Zagreb, Croatia
	Selection / Grant
2020	Selected as the Most Memorable Artist of the Year, Incheon Art Platform
2019	Gyeonggi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8	Gyeonggi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Visual Arts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6	Audience Choice Award, Seoul New Media Festival SeMA Emerging Artists Supporting Program, Seoul Museum of Arts
	Residencies
2020	Cheongju Creative Art Studio, Cheongju
2019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6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Collec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인천아트플랫폼 2020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
문소현 개인전 «발견된 위치 없음»
2020.08.11. - 2020.10.04.

인천아트플랫폼
관장—변순영
기획—이은진
진행보조—황소영

번역—박지혜, 황선훈
사진—홍철기
디자인—곽은선
인쇄—성광디자인

공간디자인/시공—무단청단
영상/음향—에이미디솔루션(주)
사운드—COR3A, 문소현

발행처—인천아트플랫폼
발행인—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
편집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변순영
발행일—2020년 10월

©2020 인천아트플랫폼.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 및
저작자,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IAP the Most Memorable Artist of the Year
2020
MOON Sohyun Solo Exhibition
Location Not Found
2020.08.11. - 2020.10.04.

Incheon Art Platform
Director—BYUN Soonyeong
Curator—LEE Eunjin
Assistant—HWANG Soyoung

Translator—PARK Jee Hae, HWANG Sunhye
Photography—HONG Cheolki
Design—KWAK Eunsun
Printing—Sung Kwang Design

Architect/Construction—MDHD
A/V—A Media Solution
Sound—COR3A, MOON Sohyun

Published by—Incheon Art Platform
Publisher—CHOI Byung Kuk, CEO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Director—BYUN Soonyeong,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Publication Date—October, 2020

©2020 Incheon Art Platform.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Korea
Tel. +82.32.760.1000
Fax. +82.32.760.1010

